인간 속에는 다른 성품을 가진 두 가지 사람이 있다

人間の中には違う性稟を持った二人がいるのです

닌겐노 나카니와 치가우 세에힌오 못타 후타리가 이루노데스

人間の中には互いに別な二つの存在, 一つは神の性向の人で, もう一つは魔鬼の性向の人です 인간 속에는 서로 다른 두 존재, 하나는 하나님의 성향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성향의 사람

「自身を知り, 相手を知ってこそその爭いに勝つことが出來る」と言う, 中國の孫武先生のお話がある. それは, きわめて正確なお話です. 即ち, 自身を知り, 魔鬼を知ってこそ魔鬼に勝つことが出來るということです.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중국의 손무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바로 자신을 알고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人間の中には二種類の人がいる. 一つは神の性向の人, 神の人で, もう一つは魔鬼の性向の人, 魔鬼の人である.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두 가지 사람이 인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이요. 하나는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自分が魔鬼の人なのか神の人なのか, これを分別して調べようとすると, 自分が狡猾で, いつも二重の性格の心が動くのは, これは魔鬼の人です. 내가 마귀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알아보려면, 자신이 교활하고 항상 이중성격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건 마귀의 사람입니다.

「私と言う意識」でこの道を行こうとする心を持っている人は, 絶對にこの永生の道を行くことが出來ない. 「私という意識」は魔鬼なので絶對に成就されることもなく, また, 天國にも行くことが出來ず, 永生を得ることも出來ない. だからある人は魔鬼の人がこの道を行こうとしますが, 一日も早く心を変えて神の人が行け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나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은 마귀이므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천당도 갈 수도 없고, 영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루빨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言い換えると, 人が率直ではなく, すぐに「表裏不同の人」それは自分が知っています。「私はなぜ、中身が違って表面が違うのか？」というのは, 魔鬼の人を中心に生きているからです. それで祭壇を出ても魔鬼の人が成すために祭壇を熱心に出てくる人がいます. そんな人は絶対に救いがありません. だからすぐに魔鬼の人がこの道を行くことができないので, 一日も早く真実の天の人の位置に心が立つように努力してください. 말하자면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고 바로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 그건 자신이 압니다. '나는 왜, 속 다르고 겉 다를까?'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나와도 마귀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단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의 사람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하루빨리 진실된 하늘의 사람의 위치에 마음이 서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天の人はいつも犠牲的な心が心の低に下敷きになっているので, 自分も知らずに犠牲的な生活を習慣的に行なうようになっている. 하늘의 사람은 항상 희생적인 마음이 마음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희생적인 생활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魔鬼を誤魔化してこそ魔鬼に勝つことが出來る 마귀를 속여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そのため, 今からでも天の人がこの道を行けるように新しく出発すればいいのです. しかし、魔鬼の人としてこの道をずっと行こうとすると, それは徒労です. 成らず, この永生の道を行くこともできず、天国にも入れない, そんな無駄骨を折る必要がない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 영생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천당도 못 들어가는 그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どうして私がこのようによく分かるかと言えば, 救い主は完全であるからである. 救い主は知らないことが無いぐらい知っている.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구세주는 완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구세주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皆さんが魔鬼の人なら, 救い主を誤魔化そうとしても救い主は騙されるふりをするだけで騙されることはない. 騙されるふりをするだけです. 魔鬼を誤魔化せば魔鬼に勝つことが出來るし, 魔鬼を殺し無くすことが出來る. 魔鬼を誤魔化すことが出來なければ絶對に魔鬼を滅ぼすことは出來ない. だから, 私は魔鬼をうまく誤魔化したから勝利者になった. 여러분들이 마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암만 구세주를 속이려고 하지만 구세주는 속는 척 하는 것이지 속는 게 아닙니다. 속는 척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귀를 속여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속일 줄 모르면 절대로 마귀를 멸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귀를 잘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자가 된 겁니다.

皆さん, 救い主が外觀では馬鹿のように見えても魔鬼の人と天の人をみわけることが出來ないでしょうか? すべてが出來る. だから, 天の人にだけ甘露を注いで上げるが, 魔鬼の人には絶對注いで上げない. 魔鬼の人に注いで上げればその人が死んでしまう. 魔鬼を殺して無くす甘露であるから死んでしまうのである. そうなると, 人を殺す歷史にしかならないのです. だから, 救い主は魔鬼の人には注いで上げず天の人にだけ甘露を注いで上げる. 여러분들 구세주가 암만 바보라도 마귀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것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의 사람한테만 이슬성신을 부어주지, 마귀의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부어줍니다. 마귀의 사람한테 부어주면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마귀를 죽이는 이슬성신인 고로 그런 사람한테 부어주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그러면 사람 죽이는 역사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한테는 안 부어주고 하늘의 사람한테만 이슬성신을 부어줍니다.

神の分別が上手であってこそ勝利者になることが出來る 신분별을 잘 해야 이긴자가 될 수 있다

皆さん, 私は神の分別が上手だったから勝利者になったことで, 神の分別が上手で無かったら勝利者になることは出來なかった. 人に會う時もこの人が魔鬼の人なのか, 神に屬している人なのかを分別して接觸するべきで, それを分別もせずに接觸しては, 反って魔鬼に飲みこまれてしまう. 私は若い頃から魔鬼を分別して知っていた.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신분별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자가 되었지, 신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만날 때에, 이 사람이 마귀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서 접촉하는 것이지, 그걸 분별도 안 하고 접촉하다가는 마귀한테 도리어 삼킨 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마귀를 분별했습니다.

23歲の時, 濟州島訓練所の訓練兵時代に泥棒を捕らえた. 盜む現場を見ては居なかったが, 泥棒の靈の臭いを嗅いで捕らえた. 23살때, 제주도 훈련소의 훈련병 시절에 도둑을 잡았습니다. 도둑질하는 현장을 보진 않았지만, 도둑이 풍기는 냄새를 맡아 잡았습니다.

中隊長は訓練生300人全員を運動場でうつ伏せにした. この人も同じことをしたが, 考えてみればとても愚かなことだった. この人は誰が泥棒かを知っており, 彼を隱すのは同參罪行為だった. 중대장이 300명의 훈련병들을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전부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도 엎드려뻗쳐를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도둑놈인지 알고 있었고 도둑놈을 숨겨주는 것 또한 동참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そこでこの人は中隊長に「泥棒を捕まえるだろう。私の言う通りにしろ」と言った. すると中隊長は「泥棒を捕まえなければ死ぬ」と言い, 300人の訓練生を一列に並ばせ, 指示通りに1人ずつこの人の1メートル前を通らせた. 150人の訓練生が通り過ぎた時, 突然, 悪臭がした. 鼻をつまむほどひどい臭いだった. 通り過ぎる訓練生を指差して, この人は中隊長に「あの人は泥棒だ」と言った. 그래서 이 사람이 중대장에게 '내가 도둑놈을 잡을 테니까 중대장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너 도둑놈 못 잡으면 그땐 죽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훈련병 300명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차례로 내 앞 1미터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150명 정도가 지나갔을 때 갑자기 구린내가 확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 지독하여 코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막 지나가는 훈련병을 가리키며 중대장에게 '바로 이 사람이 도둑놈입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だから, その訓練兵がこの人の胸ぐらをつかむと, 「こいつが人間を捕まえる」と言いながら, 飛び跳ねました。しかし, この人は慌てずに彼が盜みを働いたことを全て突き止め, 物証も見つけたのです. そんなことがあった後, しばらくこの人はチョおばけと呼ばれていましたが, そう呼ぶと絶対にこの人が返事をしなかったので, 1ヶ月ほど経つとそのニックネームがなくなったのです. 그러니까 그 훈련병이 이 사람의 멱살을 쥐더니 '이 새끼가 생사람 잡는다' 하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그가 도둑질을 한 것을 모두 밝혀내고 물증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한동안 이 사람은 조(曺)귀신이라고 불렸지만 그렇게 부르면 절대로 이 사람이 대답을 안했기 때문에 한달쯤 지나니까 그 별명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だから, 曺熙聖と言う人が鬼でもないのに, どうしてそれが分かるのだろうと中隊長は氣にしたが, この人は決して秘密を教えてくれなかった. それを教えてあげると神が離れてしまう. 常に魔鬼を誤魔化すべきで, 正直に話しては魔鬼に負けるようになっている. だから, 最後まで誤魔化したのです. 그래서 중대장은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하고 신경을 썼지만, 결코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마귀는 항상 속여야지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마귀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속인 겁니다.*

2002年11月9日 勝利者の說教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52회

해인을 용사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정도령을 급히 찾아가라
때를 놓쳐 마지막에 오면 살지 못하리라

隱秘歌(九) 은비가

單乙謂不死處 牛吟滿地
단을위불사처 우음만지
惡人多生之地 악인다생지지
見不牛而牛聲出處 卽非山非野兩白之間
견불우이우성출처 즉비산비야양백지간
卽弓乙三豊之間
즉궁을삼풍지간
海印用事者 天權鄭氏也
해인용사자 천권정씨야
故曰弓乙合德眞人也 고왈궁을합덕진인야
兩白三豊之間 得生之人
양백삼풍지간 득생지인
所謂 黎首之民矣 소위 려수지민의
此意何意名勝末世矣 眞人居住之地也
차의하의명승말세의 진인거주지지야
故曰十勝也 고왈십승야
世人心覺知裁 柿謀者生衆謀者死矣
세인심각지재 시모자생중모자사의
世末聖君木人 何木上句謀見字
세말성군목인 하목상구모견자
欲知生命處 心覺 金鳩木兎辺
욕지생명처 심각 금구목토변
木木村人禁人棄之地 獨居可也
목목촌인금인기지지 독거가야
朴固卿處處瑞色也 是亦十勝地矣
박고향처처서색야 시역십승지의

단을(單乙)은 진인 정도령으로서 그 분이 계신 곳은 죽음이 없는 곳으로서 소 울음소리(정도령을 엄마로 알고 부르는 소리이며 정도령이 엄마로서 가르치는 영생의 진리말씀)가 가득한 곳이요 그 분의 말씀대로 잘 닦으면 악인(惡人)이라도 많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니라. 소는 보이지 않으나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양백간(兩白之間) 십승이요. 곧 궁을(弓乙) 십승(十勝)은 삼풍지간(三豊之間)의 해인(海印)을 마음대로 용사(用事)하는 분으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정도령이니라.

그러므로 궁을(弓乙) 십승(十勝)의 덕을 합한 진인(眞人)이라 하느니라. 양백삼풍지간(兩白三豊之間)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소위 검은 머리 백성에서 나오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세의 명승지(名勝地)이여! 진인(정도령)이 거주하는 곳으로 일러서 십승(十勝)이라고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여 마음에 깊이 새겨 깨닫고 알아야 하리라. 감(람)나무를 꾀하는 자는 살고 세상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 세상일을 도모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세의 성군(聖君)은 목인(木人)인데 어떤 나무인가는 위의 구절의 꾀하는 바의 글자를 보아야 하리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을 알고자 한다면 금 비둘기(금구金鳩=6도81궁 정도령)는 목토(木兎=5도72궁 정도령)가 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리라. 양목(兩木)이 사는 마을에는 세상 사람이 금기시하던 곳이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혼자서 살 수 있는 곳이니라. 목인이 사는 마을은 곳곳에 상서로운 빛이 감도는 곳이니 이 역시 십승지(十勝地)로다.

兩雄相爭長弓一射 양웅상쟁장궁일사
二十九日疾走者 仰天痛哭怨無心矣
이십구일질주자 앙천통곡원무심의
又曰末世之運張姓趙哥 出馬自衆之亂
우왈말세지운장성조가 출마자중지란
庚炎辛秋怪變層生 경염신추괴변층생
逆獄延蔓矣 壬三癸四
역옥연만의 임삼계사
子丑寅卯鼠候相爭 千祖一孫
자축인묘서후상쟁 천조일손
雙牛相鬪 百祖一孫 쌍우상투 백조일손
虎龍相克百祖三孫 호룡상극백조삼손
兎蛇噴火百祖十孫 토사분화백조십손
龍馬有事一祖十孫 용마유사일조십손
觀覺此書 心不覺者下愚不移
관각차서 심불각자하우불이
上下分滅矣 상하분멸의
上字之意貪官誤吏富貴客
상자지의탐관오리부귀객
富不謀身沒貨泉 부불모신몰화천
孔孟詩書舊染班下字之意
공맹시서구염반하자지의
牛性馬性一字無識 우성마성일자무식
高人望見亦失時 고인망견역실시

出入從事不覺 출입종사불각
上下兩人亦下愚 상하양인역하우
不移末動之事怨無心矣
불이말동지사원무심의
嗟乎哀哉人人覺 차호애재인인각

두 영웅이 서로 싸우는데 장(張)씨가 긴 활(長弓)을 한번 쏘니 병든(疾질) 조(趙=二十九日疾走者)씨가 화살을 맞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죽으리라. 원무심(怨無心)은 죽을 사(死)자의 파자. 또한 이르기를 말세의 운에 장(張)씨와 조(趙)씨가 출마를 하는데 같은 무리(당黨)에서 자중지란(自衆之亂)이 일어나니라. 경자년(庚子年) 여름과 신축년(辛丑年) 가을에는 괴변이 겹치느니라. 역모(逆謀)가 드러나서 투옥되는 일이 만연하리니 이는 임인 계묘의 일이라. 임삼(壬三) 계사(癸四)는 자축인묘 중에서 세번 째는 인(寅)이고 네번 째는 묘(卯)이니 임삼(壬三)은 임인(壬寅)이며 계사(癸四)은 계묘(癸卯)이다.

쥐(子자)에서 원숭이(申신)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천조일손(千祖一孫) 즉 천 조상에 한 자손만 살아남게 되리라. 병자호란(병자년 축월부터 정축년 초까지)에는 백조일손(百祖一孫) 즉 백 조상에 한 자손만 살아남게 되며 임진왜란에는 백조상에 세 자손만 살아남게 되며 수토삼수에는 계묘(癸卯)년 사(巳)월에 하늘에서 불(천화)가 땅에 떨어지면 백 조상에 열 자손이 살아남게 되리라. 갑진(甲辰) 경오(庚午)월에 천지공사가 있으면 한 조상에 열 자손이 살아남으리라.

이 책을 보고 깨달아야 하느니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 중의 어리석은 자요. 말동지사(末動之事)를 당해도 정도령을 찾지 않으니 상(上) 즉 부패한 선비는 선비대로 하(下) 즉 일자무식꾼은 무식꾼대로 나뉘어 멸망하느니라. 상(上)자의 뜻은 탐관오리(貪官誤吏)와 부귀만을 탐하는 자를 말하며 돈에 빠져서 부(富)가 내 몸을 죽지 않도록 해주지 못하는 것도 모르는 자들로서 공자 맹자의 시경서경을 읽으면서도 참 뜻을 모르고 구습(舊習)에 물든 양반을 말하느니라. 하(下)자의 뜻은 우성도 마성도 모르는 천지도 모르는 일자무식자(一字無識者)를 말하느니라. 높은 식견을 가진 자도 때를 놓치면 들고 날 때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되느니라. 상하(上下) 양편에 속한 사람들 모두 역시 어리석은 자들이니라. 말동지사(末動之事=말입의 시기의 일)를 당해도 정도령을 찾지 않으니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 아! 슬프고 애처롭도다. 사람 사람들아! 마음에 깊이 깨달아 십승 정도령을 꼭 찾아가야 하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